

# 대회 2일차... 전북, 종합순위 7위

남자 육상트랙 임준범, 2관왕 올라  
남자 창던지기 김정호 신기록 달성  
육상트랙 전민재, 400m서 금메달  
축구 11인제 청각팀, 준결승 진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전북도 선수단은 16일 현재 금17, 은22, 동23개로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열린다.

전북도 선수단은 게이트볼, 농구, 당구,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골프, 펜싱,댄스스포츠, 유도, 럭비, 골볼, 요트, 카누, 트리아슬론, 슐런, 쇼다운(발출전) 등 30개 종목 중 24개 종목에 선수 6,025명, 임원 및 관계자 2,953명 등 총 8,978명 출전했다.

대회 2일차를 맞아 육상트랙 임준범 선수는 남자 5,000m(T13)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육상필드에서 김정호 선수 역시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창던지기(F56)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의 자존심 육상트랙 전민재 선수는 여자 400m(T36, 38)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윤환진 선수는 남자 원반던지기(F33)에서, 문지경 선수는 여자 원반던지기(F33)에서 각각



①창던지기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정호 ②전민재 ③축구 청각 전북팀

금메달을 땀다. 사이클 조은경, 서혜경 선수가 출전한 여자 개인도로 100km(B)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고, 수영 최은지 선수는 여자 접영 50m(S6) 금메

달 목에 걸었다. 또한 축구 11인제 청각팀은 경북을 3대 0으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호응'

초보자 육성 목적 프로그램 운영

이달 현재 기준 7만4000여명 참여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

16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이 도민들의 건강 과수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정부 기금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시·군 신청으로 진행되는 데 올해는 익산과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순창, 고창, 진안 등 8개 시·군 19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10월 현재 기준 약 7만4,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

사고와 학교체육 시설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리매니저와 사업 담당자는 필수로 배치됐으며, 자원봉사자와 파트타임 지도자 등도 확보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동호회원 유입 보다 생활체육 비참여자나 초보자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 체육회는 이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지역 동호회 또는 클럽과 친선 교류전 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체육이 지역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이고 더 많은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은성 기자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국 대 북한의 경기,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평양 남북축구 중계 무산... 靑 "최선 다했지만 아쉬운 마음"

청와대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한국과 북한 경기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대해 똑같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축구 중계가 무산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스포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도 많이 기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통일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생중계 요청에도 선수단 이외의 취재진과 중계진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취재진들도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홈페이지와 축구협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경기 결과를 전해야 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군 현대화 건설장 시찰 보도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 태권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진단

태권도진흥재단, 19일 태권도원서 학술 심포지엄

태권도의 성지인 전북 무주에서 태권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16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에 따르면 '태권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1시부터 태권도원 내래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꾸러진다. 국내외 태권도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제1세션은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를 좌장으로 해외 태권도산업의 현황과 전략방향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이승

필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태권도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유의동 수석연구원은 태권도산업 현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통해 태권도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다.

재단은 태권도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을 마련하고자 태권도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태권도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심포지엄이 태권도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Nice to meet samyang

#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천연 유래 Beauty & Personal Care 소재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바이오팜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삼양이노켄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 KCI | 삼양에프앤비 |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EP형가리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양영수당재단